영화의 젠더화 된 주체성: **1990**년대
코리안 뉴웨이브에서 박찬옥의 ‘질투는
나의 힘’까지

함 성 주

한국 여성커뮤니케이션 학회 2015 봄철 정기학술 대회

젠더 연구회, 4월 18일, 토요일, 2015

Renegotiation of the Korean New Wave in the 1990s

코리안 뉴웨이브 담론

- 운동으로서 영화 : 1980년도 서울 영상집단과 ‘작은 영화’ 운동
- 장선우, ‘박광수’ : ‘social critique’과 ‘리얼리즘’

1996년 부산영화제
Korean New Wave
Retrospective

- 운동으로서의 영화와 작가주의의 절충

포스트 뉴웨이브 시네마
(문재철)

- 뉴웨이브 시네마 : 작가주의, 아트시네마, 리얼리즘, 사회적 비판 의식
- 포스트 뉴웨이브 시네마: 장르, 상업화, 작가주의의 붕괴, 역사와 현실에 대한 자의식 약화

Korean New Wave: Retrospective from 1980 to 1995, The 1st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, Piff publication, (1996).

Moon Jae-Cheol, ‘Cinematic Memory and Cultural Identity: Focused on ‘Post Korean New Wave Cinema’,’ PhD Thesis, Chung-Ang University, 2002.

**Korean New Wave
cinema as Art cinema
(김선아)**

- **Global context**에서 서구 시장에 ‘**art cinema**’와 제 3세계 **locality** 라는 **national cinema**의 프레임을 이용.

코리안 뉴웨이브 시네마의
특수성 (Rob Wilson)

- 한국 영화- 분단과 근대의 극복이라는 특수성

**Remasculinization of the
Korean cinema (김경현)**

- **Socio-political criticism-Korean New Wave**
- **1970년대-1980년 초반의 유약한 남성성의 재현**
→ **90년대 강한 남성 주체**

Kim Sun-A, *The Unfamiliar Boundary Called Korean Cinema* (Seoul: Communication Books, 2006)
Rob Wilson, “Korean Cinema on the Road to Globalization: Thinking Global/Local Dynamics, or Why Im Kwon Taek is not Ang Lee,” *Inter-Asia Cultural Studies*, vol. 2, Issue 2 (2001), pp 307-318
Kim Kyung Hyun, *The Remasculinization of Korean Cinema* (Durham and London: Duke University Press, 2004).

코리안 뉴웨이브 in the 1990s

- 1990년대 대중문화 지형 속에 위치

- 90년대 문화의 혼종적 정치성 :

- ① high brow/low brow ② 정치 담론 → 문화담론

- Ex) 장선우

- 코리안 뉴웨이브의 다양성:

- ‘운동으로서의 영화/ 상업적 장르’의 이분법적 구분

- or ‘작가주의/ 상업장르영화 이분법적 구분’에 한정되지 않는다.

Steve Neale 과 Geoffrey Nowel-Smith

- ‘art cinema’는 흔히 National cinema의 발달 과정에서 헐리우드 영화의 마켓 독점과 관련되어 연관 지어 진 카테고리이다.

영화의 산업적 성격- nationalism을 요구 (Paul Willemen)

- 영화의 산업적 성격은 일정한 크기의 국내 영화 마켓 수요 - 동질적 요소 → 내셔널리즘

Steve Neale, “Art Cinema as Institution,” *Screen*, vol. 22 no.1 (1981), pp. 11-39
Geoffrey Nowell-Smith, “Art Cinema”, *The Oxford History of World Cinema*, ed. by Geoffrey Nowell Smith (Oxford and New York: Oxford University Press, 1996), pp. 567-575
Paul Willemen, *Looks and Frictions: Essays in Cultural Studies and Film Theory*, (London and Bloomington: Indiana University Press and BFI Publishing), 1994

National Cinema와 gender

국가주의적 담론- **female body**
(Susan Hayward)

- 국가주의적 담론이 **female body**를 연계하는 방식.
- 문화적 정체성의 담지자
ex) ‘서편제’

저항적 **nationalism**
피해자로서의 여성 재현
(**victim**) (최정무)

- 저항적 내셔널리즘의 담론이, 흔히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이미지나 재현을 통해 자기 자신의 **self-construction**에 이용하는 경향.

- **National cinema**와 **female subject** 간의 **gender conflict**은 내재적.
- 1990년대 **Korean New Wave**에서 재현된 남성 주체의 **self-criticism**.
 - 국가폭력과 ‘광주’를 사유하는 방식 : 장선우 ‘꽃잎’과 이창동 ‘박하사탕’

Susan Hayward, “Framing National Cinema,” *Cinema and Nation*, ed. by M. Hjort and S. MacKenzie (London: Routledge, 2000), pp. 88-102

Choi Chungmoo, “Nationalism and Construction of Gender in Korea,” *Dangerous Women: Gender and Korean Nationalism*, ed. by Elaine H. Kim and Choi Chungmoo, (London: Routledge, 1998), pp. 9-32

Korean New Wave in the 1990s & male subjectivity

장선우

- ‘꽃잎’
- 가해자/피해자 구별 희미
- 나, 너, 우리 – ‘누이’
- Nation State 의 폭력 / sexual violation

이창동

- ‘박하사탕’
- 중년 남성의 개인적 파멸- 국가 폭력의 트라우마
- 현재의 존재적 결핍 (lack)
- 순임 : ‘순수’의 담지자

- 1990년대 코리안 뉴웨이브 영화의 남성 주인공의 self-criticism.

1990년대 장선우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남성성

- ‘너에게 나를 보낸다’, ‘경마장 가는 길’
- 80년대의 정치적 엄숙성을 깨는 자기 비판 (Self-criticism): 정성일- ‘자살극’

Korean New Wave in the 1990s & male subjectivity

- 장선우 영화의 실험적 다양성은 1990년대 코리안 뉴웨이브 영화의 남성 주인공의 자학적 경향
- 강한 남성성의 구성이 아니라 ‘self-exposing’을 통한 self-criticism의 특성
 - 홍상수표 남성적 재현의 특징- ‘찌질 함’

Cf.) 코리안 뉴웨이브의 작가주의적 작품에서 남성주체 (**male subjectivity**)가 장르와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**gender conflict**.

- 멜로드라마의 장르 : 남성 주인공이 여성 히로인의 자리를 대신해, ‘**weeping hero**’(우는 남자) 로 등장할 때의 시각 성.

- 허진호의 멜로드라마
- 시각성에서의 **gender conflict**- 영화적 **mobility**의 정지

→ ‘**tableau space**의 정면 성 (**frontality**)’

질투는 나의 힘 (박찬옥, 2002)

Male fraternity (남성 교우 체)

- Freudian **'deferred obedience'**
- Destabilization of the settlement of male subjectivity in a fraternity & secure lineage of patriarchy.
- tensions of incest taboo and patricide in the homo-social bonding of fraternity after the death of father.

* Sigmund Freud, *Totem and Taboo,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. 13, (1913-1914): Totem and Taboo and Other Works*, trans. by James Strachey in collaboration with Anna Freud (London: Hogarth Press & Institute of Psycho-Analysis, 1955), pp. 1-162 (p. 144).

Oedipal trajectory (오이디푸스적 경로)

- 남자 주인공의 여정 : ‘**abjection**’의 공간 → **settlement of fraternity**.
 - **J. Kristeva’ abjection**과 오이디푸스:
 - ① 오염과 더러움 (도시의 역병과 **incest taboo**)
 - ② 오이디푸스의 추방과 **Blindness**

Julia Kristeva, *Powers of Horror: An Essay on Abjection*, trans. by Leon S. Roudiez (New York: Columbia University Press, 1982), p. 84

Oedipal trajectory (오이디푸스적 경로)

- Oedipal pattern in signification

1. Jacqueline Rose :

“ **film system**은 반복과 해결의 운동성으로 진행하며, 내러티브의 욕망은 오이디푸스적 명령에 굴복하곤 한다.”

2. Gilles Deleuze: “vibration of oedipal pattern”-

‘비결정적이며 어디서나 발견되며, 끊임없이 욕망을 기록하며, 모든 것을 부여잡고, 욕망과 결합하여 패턴을 재 분배한다.’

Jacqueline Rose, ‘Paranoia and the Film System’, *Screen*, vol. 17, no. 4 (Winter 1976/7), 85-104.
Gilles Deleuze and Félix Guattari, *Anti-Oedipus: Capitalism and Schizophrenia*, trans. by Robert Hurley, Mark Seem, and Helen R. Lane (London: Athlone Press, 1984), p.126

Oedipal pattern in signification

3. Teresa De Lauretis :

- **propp**의 민담분석을 인용하며, 오이디푸스의 개입에 의해,
matriarchal system of succession (모계적 계승 시스템) → 부계적

- 민담에서의 ‘부친살해’ (**patricide**)의 주제
 - a. 권력 교체 방식의 변화

 - b. “남주인공이 공주님과 결혼하여 사위가 되기” → 부계적 계승자.

봉합 (suture)과 시각 주체성 (subjectivity)

- 분열된 주체와 시각적 봉합 ‘Suture’

I. **Jacqueline Rose** : 카메라와 동일시 할 때의 불안정성.

(identification with both terms of the opposition – shot/counter-shot)

II. **Oudart** 의 shot/counter shot의 분석

- 관객 (the audience)의 frame의 종속: 내재적 결핍 혹은 부분적 박탈

shot 1 (absent one) → shot 2 (fictional owner)

→ 시점 샷 (POV Shot)과 영화적 봉합

Jacqueline Rose, ‘The Imaginary,’ *Sexuality in the Field of Vision* (London: Verso, 1986), pp. 165-197

Jean-Pierre Oudart, ‘Cinema and Suture,’ *Screen*, vol. 18, no. 4 (1977/78), 35-47

Daniel Dayan, ‘The Tutor-code of Classical Cinema,’ *Film Theory and Criticism*, ed. by Leo Braudy and Marshall Cohen, 5th edn. (New York: Oxford University Press, 1999), pp. 118-129.

III. Slavoj Žizek

- **identification of the other** (타자와의 상징적 동일시)
- “주체가 모방할 수 없는 바로 그 지점, 닮음 (**resemblance**)으로 이해되지 않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.”

cf.) 히치콕의 주관적 트레킹 샷 — ‘**the uncanny**’ ‘**the thing**’으로 다가갈 때 반드시 시점을 바꾸는 **cut**을 동반해야 한다.

질투는 나의 힘 (박찬옥, 2002)

Female Gender를 문제화 하는 방식

- Irigaray's 'specularization'

- '익명성': 서로 똑같이 보이며, 교환 가치로 존재, 남성들간의 관계를 등록.
- 'mirror of value of and for man', 'bears the marks or the imprint of relations between men'. → 'bodies of women' within heterosexual economy.- 'homo-social', 'hom(m)o-sexuality'.

- 여성적 주체성 (female subjectivity) 을 문제화 하는 방식

- ① symbolic signification – 'corporeality'
- ② absence of female body
- ③ female gaze

질투는 나의 힘 (박찬옥, 2002)

Terms of address (호칭)과 Signification

- **fictive kinship term** (가상적 친족 호칭): ‘누나’, 혹은 ‘오빠’

① 젠더적 중성 성 (**gender-neutrality**)

② 사적 친밀함을 사회적 관계에 부여.

→ 박찬옥의 영화에서는 **sexual context**와 결합→ 오이디푸스 **context**

- 하나의 의미(**meaning**)로 수렴되지 않는 **signification**

- **Intro Scene:** 학교 교장실 안에서 잡 인터뷰를 하고 있는 남주인공 원상

-국가, 윤리, 태극기, 아버지, 아들, 딸 ↔ 운동장의 ‘마카레나’ 체조.

질투는 나의 힘 (박찬옥, 2002)

Subject Identification (주체의 동일시)

• 남주인공 원상의 동일시와 아버지의 호명에 대한 대답.

① 죽은 딸 **Clementine**을 부르는 아버지의 호명의 노래

② 편집장 (이성애적 라이벌)의 운전수를 하겠다고 대답.

- 박찬옥 인터뷰 ‘자신이 그것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, 그의 친구가 원할 때 그것을 하고 싶은 멘탈리티’*

a. 카메라 **movement** – **Clementine** 선율

b. ‘운전수 겸 조수가 필요하다는 편집장의 말’-응답

c. **Zizek** : ‘닭거나 흥내 낼 수 없는 지점에서의 상징적 동일시’

- **gender-crossing**

* Kim Youngjin, ‘An Observation of the Attraction of *Jealousy is My Middle Name*,’ *Film2.0*, no. 122, (April 15- April 22, 2003) pp. 72-74.

질투는 나의 힘 (박찬욱, 2002)

Female Gaze (여성적 응시)

- 편집장의 딸 미림의 시선

- ① 영화의 엔딩은 미림의 **point of view shot**
- ② 편집장 윤식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안정화 되는 두 번의 경우, 딸 미림이 등장 - 불안(**anxiety**)
- ③ 영화의 내재적 **fetishistic viewing**의 속성과 **paternal**의 호명(**female death**)과 응답으로 결탁한 **male bonding**을 응시 (**looking back**).

질투는 나의 힘 (박찬옥, 2002) 과 Korean Blockbuster

- **Dissecting the web of Signification- capture and slippage**

- 여성의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가부장적 **signification system**

- 남주인공 원상의 ‘질투’의 여정

→ 가부장적 시스템과 **homo-social** 한 **fraternity**에 종속

- ‘질투는 나의 힘’(박찬옥)은 **art house** 배급이 아닌 일반 극장 배급 상영

→ 일주일 만에 극장에서 내려짐.

vs. 코리안 블록버스터 (‘실미도’, ‘태극기’ 등) – ‘폭력과 국가 혹은 형제애’

질투는 나의 힘 (박찬옥, 2002) 과 Korean Blockbuster

- 박찬옥의 <질투는 나의 힘>(2002) 의 **oedipality**에 대한 해부는,
 - 프로이트의 ‘**deferred obedience**’에 내재하는 구조를 드러내며, 같은 시기 코리안 블록 버스터에 서 보여지는 한국적 오이디푸스성에 대한 **critique**을 수행.
 - ex) ‘효자동 이발사’, ‘실미도’, ‘그때 그 사람’ – 아버지의 죽음 이후, 또는 그의 죽음의 유무의 순간을 확인하는, 폭력의 스펙터클.
- **Laura Mulvey:**
 - ‘**Oedipality**에 감춰져 있는, 보다 더 꺼려지는 욕망과 공포’
 - 죽은 아버지의 유형의 그림자가 남성들 사이의 관계에 드리우는 영향
 - 호모 포비아적 불안과 육체적 폭력으로 **bonding**되어진 것에 대한 매혹.

Laura Mulvey, ‘The Oedipus Myth,’ *Visual and Other Pleasure*, (Basingstoke: Macmillan, 1989), pp. 177-201 (p. 199).)